

[여호수아 성경학교]

세계 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민요섭 선교사(HOPE대표) / 2001 / 페이지수: 2

미전도종족인 경우에 자생교회가 하나가 생기거나 선교의 대상이 속한 종족 수나 인구, 주민을 대상으로 5%정도 신자가 되면 복음화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로마서 10장 13~15절에서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 인구가 45만 정도이지만 개신교 선교사는 25만 정도입니다. 이들 중 93%는 교회가 있는 곳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약 25%정도로 미전도 종족에 파송되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해야 합니다. 1만개의 종족을 위해서 지금보다 두 배로 선교사는 많아져야 합니다. 즉 50만 명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 신자가 20억 가량이라지만 사실 그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6~7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억의 인구를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신자로 불리 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화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한국선교사는 약 9천여 명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는 '가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는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상황

현재 세계 인구는 62억 정도 됩니다. 2015년이 되면 80억이 될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율에 반해 기독교 인구의 증가율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점차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빈민과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사실 도시의 인구 중 5% 이상이 크리스천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많아지면서 복음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총체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 영양실조, 주거, 물, 위생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거리의 아이들 문제, 계속되는 분쟁 문제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주자의 증가문제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교의 경향

21세기 선교는 약 열 가지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교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 총체적선교, 즉 복음증거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의 해결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 2/3 세계 선교사의 개발, 훈련,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 창의적 선교전략의 개발, ▶ 단기 선교사의 증가, ▶ 서구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중국과 인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 ▶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 아홉 번째로 국제적 협력 사역의 활성화가 가속화, ▶ 전문인 선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10가지 항목은 사실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략들이 효과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매크로(거대한)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마이크로(세미한)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축복을 받지 못한 복음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야합니다.

* 출처: 온누리신문